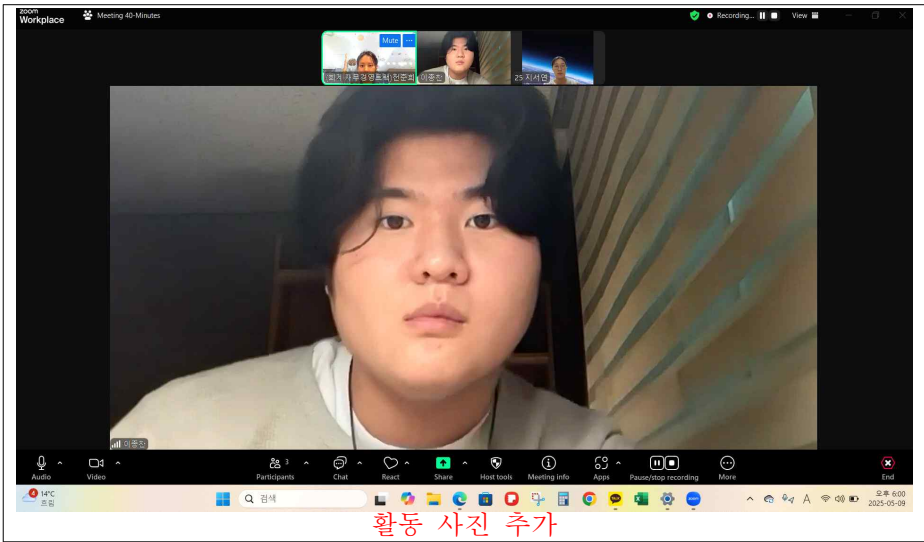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프라이데이 리더스

1주차	일시	4 월 4 일 17 : 30 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전준희(2331314)	O
		이종찬(학번)	O
		지서연(학번)	O
		주혜원(25)	X
	진도	도서명: 사피엔스	진도페이지: 18 p. ~ 118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전준희, 이종찬, 지서연] 토론내용 □ 주제 1.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준희 초기 인류는 동물과 다르지 않았다. 언어 이전에는 동물과 비슷한 수준의 소통만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후에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소통 능력이 발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서연 생존을 위해 언어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능력이 발달한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른 것. 인간은 이제 이미 생존에 최적화된 존재이며, 그 위치에서는 더 이상 다른 생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해서는 안 된다. 종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진화를 겪은 것이다. 인간의 능력도 자연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특별한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다.	

1주차	토론 내용	□ 주제 2. 상상력과 협력의 인지능력,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 준희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지점 중 하나는 ‘상상력’이다. 언어를 기반으로 실재하지 않는 개념(신, 이념 등)을 믿고 협력했다. 인간은 자연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본다. 그렇기에 통제하고 책임져야 한다. 인간은 유희와 만족을 위해서도 파괴를 감행한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본성이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준비와 절제가 필요하다. 서연 상상력은 인류를 발전시켰지만 동시에 기후위기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이미 최상위 포식자다. 더 이상 단순히 생존을 위한 존재는 아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은 선택의 문제이며, 인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생태계를 해치는 수준이 되면 제어해야 한다.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 만큼, 파괴보다는 조화로운 생존을 추구해야 한다. 종찬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 경쟁하고 우월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도 나아갔다. 그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나 자원 낭비, 그리고 환경 파괴가 이루어진다. 인간의 상상력은 공존보다는 경쟁과 파괴로 흘러갈 때도 있다. 인간은 오만하다.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다른 생물을 말살하거나 실험 대상으로 여긴다. 결국 그 영향은 인간에게 되돌아오며,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인간은 타인보다 더 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소비하고 파괴한다. (예: 고급 원목 탁자 사용) 이는 우월감에서 비롯된 소비이며, 인간의 파괴는 경쟁 구조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 주제 3. 다른 동물들도 인간처럼 진화할 수 있는가? 준희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진화하기엔 다른 동물들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인간이 통제력을 갖게 되는 이유도 이 차이에 있다. 서연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갖기까지는 동물들에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자연의 이치 안에서 진화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종찬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 진화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실험하거나 제거한다. 이는 인간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인간 간의 경쟁에 기반한 구조 때문이다.
----------------	------------------	---

2주차	일시	5 월 9 일 17 : 30 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전준희(2331314)	O
		이종찬(학번)	O
		지서연(학번)	O
		주혜원(25)	X
	진도	도서명: 사피엔스	진도페이지: p. ~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전준희, 이종찬, 지서연] □ 주제 1. 기술 발전과 인간 소통 서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식 공유의 폭을 넓혔으며, 정보 접근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 발전의 기회도 커졌다고 평가함. 종찬: 기술 발전은 오히려 인간의 정서적 고립을 심화시켰다고 주장. 특히 스마트폰 중심의 간접적 소통은 이전 시대의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약화시켰다고 봄. 의견 종합: 기술은 분명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나, 그로 인한 정서적 단절과 인간 관계의 변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2주차	토론 내용	□ 주제 2. 시간의 가속화와 인간 행복 종찬: 문명의 발전과 시간의 가속화는 인류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며, 그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음. 다만 개인이 체제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봄. 서연: 시간이 빨라진 만큼 여가의 중요성도 커졌다고 평가. 여가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함. 준희: 시간의 압박이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심리적 피로를 유발함. 인류의 진보와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 의견 종합: 시간 가속화는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이나, 개인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유와 체계적인 시간 분배가 요구됨. □ 주제 3. 농업혁명: 진보인가, 파멸인가 서연: 농업혁명은 생산량 증가와 기술적 진보를 이끌어낸 긍정적 사건으로 평가. 스마트팜, AI 등과의 결합은 인간 생존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봄. 종찬: 농업혁명은 인간을 자유롭던 채집사회에서 노동 중심의 사회로 밀어넣은 계기로 보며, 삶의 질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평가. 여가의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는 인간 본연의 행복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봄. 준희: 농업혁명은 여가의 가치를 자각하게 만들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여가를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 따라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봄. *의견 종합: 농업혁명은 문명 진보의 계기이자 인간 삶의 전환점이지만, 그로 인한 노동 증가와 여가 감소는 인간의 행복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 *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토론을 통해 기술 발전과 시간 가속, 농업혁명 등 문명의 진보가 인간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었다. 특히, 문명은 발전했으나 개인의 행복은 상대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 제도와 문화가 개인의 정서적 만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	---

3주차	일시	5 월 16 일 17 : 30 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전준희(2331314)	O
		이종찬(학번)	O
		지서연(학번)	O
		주혜원(25)	X
	진도	도서명: 사피엔스	진도페이지: p. ~ p.
	토론 내용	My meetings ? All meetings ▾ 📅 Date ▾ (회계·재무경영트랙)전준희's Zoom Meeting May 16 (Fri), 5:28 PM - 6:11 PM 42mins 27secs 👤 OS (회계·재무경영트랙)전준희 (Host) (Me) OS Oh SeJong Create doc for the meeting Create doc for the meeting	
		[좌측부터 전준희, 이종찬, 지서연 - 오세종 교수님]	
미디어 플레이어 0:34:49 0:03:00 video1680267651 ⏮ ⏪ ⏩ ⏭ ⏴ ⏵ ⏶ ⏷ ⏸ ⏹ ⏺ 04:55 05:00			

3주차	토론 내용	□ 주제 1. □ 이종찬 ▷ 사피엔스를 선택한 이유 책으로부터 얻는 감정이나 지식은 다른 매체보다 정제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사피엔스』는 벽돌책으로 볼릴 만큼 방대한 분량이지만, 진화심리학 및 인류학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흥미로워 도전하게 되었다. ▷ 감명 깊었던 구절과 느낀 점 고대 제국 관련 구절에서 ‘인류’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역사 속에서는 인간을 특정 족속으로 제한하며 타 민족을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 ‘돈’에 대한 생각 돈은 돈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으며,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의미가 생긴다. 과거에는 희귀한 실물로써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의 돈은 실체 없는 신뢰 기반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증폭된 그 가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전준희 ▷ 사피엔스를 선택한 이유 그동안 책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책을 가볍게 즐기며 접해보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한 『사피엔스』에 도전하고 집중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 감명 깊었던 구절과 느낀 점 돈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실물이 아닌 ‘집단적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놀라웠다. 특히 베네수엘라 하이퍼인플레이션 사례를 통해,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체감했다. ▷ ‘돈’에 대한 생각 돈은 개인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경제적으로 집단적 통용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지금까지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사악한 제국에 대한 생각 사악한 제국은 폭력과 억압을 통해 통치와 지배를 일삼았고, 단순히 사람을 괴롭힌 것 이상의 해악은 고유 언어와 문화를 파괴했다는 점이다. 현대사회는 자율성과 협력을 중시하기에, 과거 제국의 문화말살 행위는 더욱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 지서연 ▷ 사피엔스를 선택한 이유 평소 읽고 싶었지만 분량이 많아 읽지 못했던 책이었기에, 독서클럽을 통해 함께 읽고 싶은 마음이 컸다. ▷ 감명 깊었던 구절과 느낀 점 돈은 본래 아무런 힘이 없지만, 모두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힘을 가지게 된다는 관점이 인상 깊었다. 실체가 아닌 믿음으로 작동하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게 되었다. ▷ ‘돈’에 대한 생각 돈은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	-------	---

4주차	일시	5 월 30 일 17 : 30 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전준희(2331314)	X
		이종찬(학번)	O
		지서연(학번)	X
		주혜원(25)	X
	진도	도서명: 사피엔스	진도페이지: p. ~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이종찬 - 오세종 교수님] □ 이종찬 Q 해당 파트를 읽고 느낀점이 무엇인가. A 개인적으로 문명과 과학의 발전을 가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원동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과학혁명 초반부에 종교 위주의 사회에서 과학 사회로의 전환은 핵심적인데, 신으로부터의 전지전능한 지식에서, 미확인에 대한 것을 무지로써 취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Q 개인적으로 잘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기술 A sns나 인터넷 같은 매체라고 생각한다. 사소할 지 언정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에 하루에 하나씩 단어를 알려주는 채널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가볍게 학습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원격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a) 기존 종교적 사회에서 과학은 돈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무지를 인정하고 나서, 무지에 대한 개발이 돈이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현대 과학은 장비, 실험, 인력 등의 자본이 투입된다. 과학자들이 사비로 이것을 대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탈, 기업, 국가가 이 자원을 낸다. 이러한 수익성 이익 집단이 단순 과학의 발전이니, 깨달음 등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수익모델이 있는 것이다. 기술에 대한 상업화, 바로 그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상품 생산 등이 그렇다. 현대의 과학 발전은 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돈이 되지 않는 과학은 발전하지 않는다.	